

# 문명의 융합은 가능한가?

이한구(경희대학교)

## \*머리말

20여 년 전쯤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돌 패러다임’이야말로 미소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틀이라고 환호해 마지않았다.

얼마 후 하랄트 밀러는 문명의 충돌 이론을 비판하면서 ‘문명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문명 충돌론은 21세기에 들어 10 여 년간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잠시 잠잠하더니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격렬해 지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명의 충돌이나 공존을 모두 비판하면서 나는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문명의 융합’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 1. 문명의 의미

문명은 야만이나 미개와 대립되는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를 가리키기도 한다. 예컨대 개인에 대해서는 야만인에 대립되는 문명인으로, 사회에 대해서는 야만사회에 대립되는 문명사회로 사용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문명을 설명하면서, 문명을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관습과 규율로 정의한다. “‘문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시 선조들의 삶과 구별 짓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두 목적에 봉사하는 성취와 규율의 총체이

다.”



문명은 인간과 자연의 완충장치다.

페르난드 브로델(Fernand Braudel)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명’이라는 말-신조어-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야단스럽지 않게 늦게 나타났다. 그 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16세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세련된(civilized)’, ‘세련되게 하다(to civilize)’에서 유래된 것이다.-그것의 근대적 의미, 즉 ‘세련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는 1752년 프랑스 정치가이고 경제학자였던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t)가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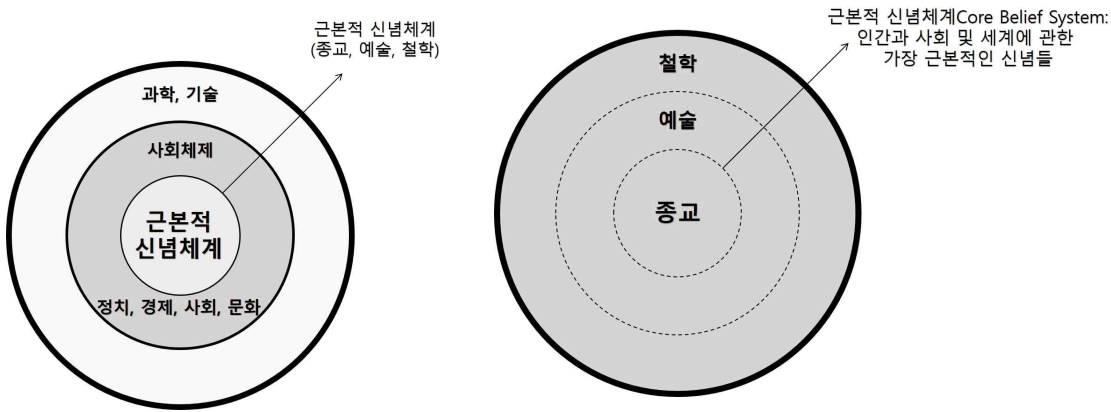
문명은 라틴어 civis(시민)과 civitas(도시)의 형용사인 civili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동사 civiliser, civilize의 명사형이 civilisation, civilization이다.

동양에서 ‘문명’은 civilization을 일본인 학자들이 번역한 용어이다. 처음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함께 검토되었던 후보들로는 文明 이외에에도, 文化, 開化, 文明開化, 文華 등이 함께 있었지만 결국 文明으로 정착되었다. 이 말은 ‘천지의 질서를 세운다’는 의미인 文과, ‘사방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인 明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미상으로는 civilization과 매우 근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명(civilization)이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의 근본이념은 이성과 진보, 그리고 문명이었다. 말하자면 지식의 발전을 통해, 그리고 통치자를 계몽시켜 제도, 교육, 법률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 개혁운동의 방향으

로서 문명은 설정되었다.

## 2. 문명의 3중 구조



위의 그림에서, 가장 중심부가 종교, 예술, 철학 등, 인간과 사회 및 세계에 관한 근본적 신념체계로 구성된 중핵 부분이고, 중간 부분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적 체제이며, 가장 바깥 부분이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다. 중심부로 갈수록 개성이 부각되고,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보편성이 지배한다.

문명의 3중 구조 중에서 한 문명이 탄생하려면 근본적 신념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부분의 정립이 없이는 아무리 거대 사회라도 문명으로 등극하지 못한다. 이것이 설사 발생론적으로 볼 때 다른 부분보다 나중에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이해이며,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체계와 이념을 포괄한다. 비슷한 논리에서 오스발트 슈팽글러는 모든 문명은 나름대로의 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혼은 수학을 통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한 문명은 독자적인 수학을 가질 때만 독자적인 문명으로 등극한다는 것이다.

나는 문명의 중핵 부분을 인간과 세계를 보는 독특한 신념체계라 보고 이것은 종교, 예술, 철학을 통해 드러난다고 규정한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해답이며, 예술은 미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을 고양시키는 양식이다. 그리고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존재의미와 가치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종교, 예술, 철학이 없

다면, 그것은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 3. 서구 문명 보편주의와 문명 다원주의는 모두 정당화될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서구 문명 보편주의는 서구 문명을 모든 문명의 유일한 표준으로 보고, 비서구를 이런 표준을 잣대로 하여 평가하자는 주장이며, 반면에 문명 다원주의는 문명이란 본래 여럿이며 이들은 모두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내가 앞서 분석한 문명의 3중 구조에서 보면 서구 문명 보편주의는 비서구 문명의 세 영역이 모두 서구 문명의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며, 문명 다원주의는 이 세영역이 모두 다르거나 적어도 중심부와 중간 부분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1절 서구 문명 보편주의: 문명의 표준은 서구 문명 하나뿐이다

##### 1)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서구 문명 보편주의 용어는 대체로 서구 중심주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서구 중심주의’라는 말의 개념을 역사철학적으로 해석하여 다음의 세 명제의 결합으로 규정한다면, 서구 중심주의와 서구 문명 보편주의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서구 사회의 역사 발전 경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까지 포괄하는 인류사에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둘째, 서구는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 중 최고의 단계에 와 있으며, 이는 비서구 사회도 따라가야 할 준거로서 받아들이며, 셋째, 따라서 서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서구 사회는 역사 발전의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 때문에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가 역사 발전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의식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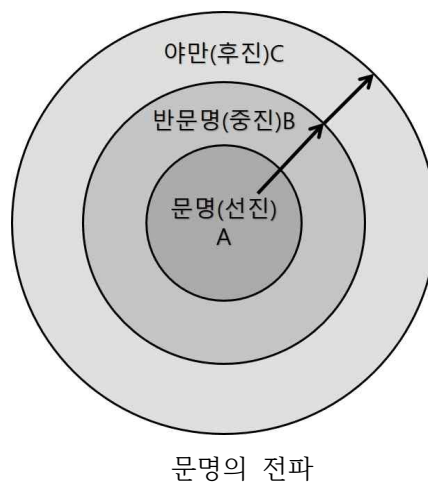
##### 2) 서구 문명의 본질

서구 문명은 세 가지 혁명의 종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정치)혁명이 그것이다.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은 17세기 갈릴레오 뉴턴등에 의한 고전적 역학의 확립과 그에 따른 세계상의 변혁을 가리킨다.

내가 앞에서 분석한 문명의 구조에서 보면, 서구 문명 보편주의는 비서구에 대해 과학, 기술의 영역(㉔)뿐만 아니라, 사회체제(㉕)나 근본적 신념체계(㉖)까지 서구화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이다.

### 3) 서구 문명의 전파



## 2절 문명 다원주의: 문명의 표준은 여럿이다

### 1) 문명 다원주의의 본질

비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근대화에 성공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며, 그동안 서구 문명 보편주의에 눌러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문명론자 간에도 특성이 있어 서로 다른 논점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되는 가장 핵심적인 논제는 다음과 같다.

- i) 한 문명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 세계관들은 상호 비교 불가능한 것이다.
- ii) 한 문명의 요소들은 전파 가능하지만 그 기초는 다른 문명의 민족에게 양도될 수 없다.

iii) 한 문명은 유기체와 같이 탄생과 성장 및 사멸이라는 과정을 밟는다. 이런 점에서 문명은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인류의 역사는 하나의 보편사가 아닌 문명들의 역사를 한데 모은 총합에 불과하다.

## 2) 문명 다원주의의 역사철학

문명 다원주의의 선구자인 다니레프스키는 한 문명을 하나의 중심 민족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으로 보면서 문명의 발전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언어의 법칙: 언어는 문화의 기초이며, 고유한 언어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지 못한다.

(2) 정치적 독립의 법칙: 정치적 독립이 없는 문화의 독립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문화의 독자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

(3) 양도 불가의 법칙: 한 문명의 요소들은 전파 가능하지만 그 기초는 다른 문명의 민족에게 양도될 수 없다.

(4) 발전의 법칙: 한 문명은 민속학적 자료가 다양할 때 풍요롭게 발전한다.

(5) 순환의 법칙: 모든 문명은 탄생과 성장, 성숙, 노화의 과정을 밟는다.

## 4. 문명은 문화 유전자들의 결합체다

문화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리처드 도킨스가 창안한 meme은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imeme의 축약어인데, 문화적 정보의 복제자로서 문화적 전달 내용의 단위를 의미한다.

“나는 새로운 종류의 복제자가 지구상에 최근에 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있다. 이것은 아직은 유아기에 있으며, 원시 용액 속에서 서투르게 헤매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낡은 유전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새로운 용액은 인간 문화의 용액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복제자에게 문화적 전달의 단위나 모방의 단위라는 생각을 전달해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 ‘mimeme’는 모방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어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소 ‘gene’과 같이 들리는 단 음절을 원한다. 나는 나의 고전학자 친구들이 내가 ‘mimeme’를 ‘meme’로 줄

인다 해도 양해하기 바란다.”

칼 포퍼가 말한 객관적 관념의 세계(the world of ideas in the objective sense)나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이 주장한 객관화된 정신의 세계(Die Welt der objectivierter Geist)는 모두 문화라는 대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객관적 관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민들, 즉 이론이나 명제, 혹은 진술들은 모두 중요한 문화 유전자들이다.

문화 유전자는 학습이나 모방에 의해 사방으로 전달된다. 내가 학습을 통해 플라톤의 형상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형상이론은 플라톤에게서 나에게로 전달된다.

### 1) 문명의 진화: 유전자와 문화 유전자의 공진화

공진화를 부인하면 우리는 양극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은 모든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화 결정론이다. 유전자 결정론에 의하면, 우리 몸의 온갖 구조와 특성은 유전자의 산물이다. 우리 뇌의 기능과 구조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자는 뇌의 구조를 제한하고, 뇌가 문화를 학습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제약한다. 이런 제약들은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화 결정론도 문제를 안고 있다. 문화가 유전자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피터 리처드슨과 로버트 보이드는 문화가 유전자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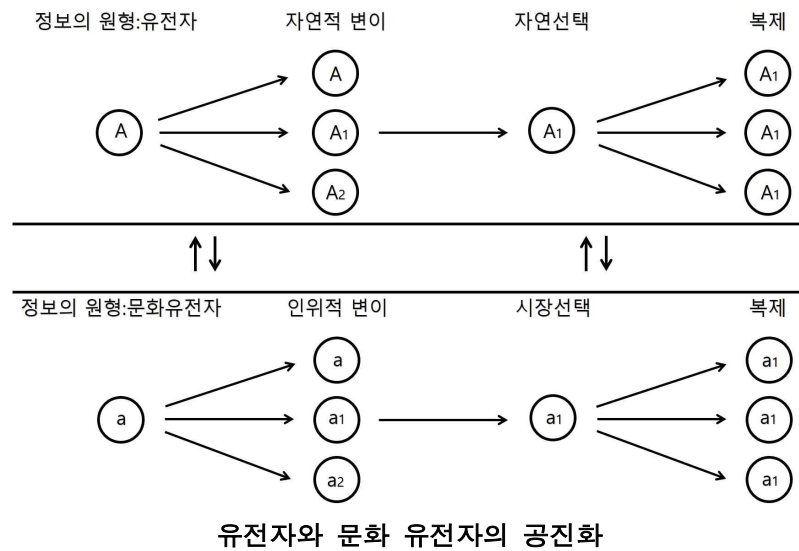
i) 문화적으로 진화한 기술이 몸의 구조와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현대인이 이전의 인류보다 덜 강건한 것은 근육 대신에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ii) 인류는 처음 타고난 발성기관과 청각 장치를 활용해 간단한 언어를 생산했다. 그 다음 이 기관들이 구두 언어를 생성하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언어는 더 풍부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또 이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고 생산하는 기관이 더 다듬어졌다.

iii) 문화적으로 진화한 도덕규범은 적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반

사회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벌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유전자는 억제되거나 제거된다.

iv) 요리 문화의 발달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큰 뇌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 2) 열린문명

나는 열린 문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1) 열린 문명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명들을 하나의 보편문명으로 통합되어야 할 지역 문명들로 간주한다. 현대문명의 최대 과제는 세계성과 지역성의 화해와 소통이다. 문명들이 서로 만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공통성과 기본적인 공통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열린 문명은 인류 전체가 평화적으로 통합되고 번영하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꿈을 함축하고 있다.

(2) 열린 문명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 해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존중,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 평등, 자유, 존엄 등은 어떤 특정 문명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가치들이다. 작은 공동체를 포함하여 문명 간의 배타와 독단을 조장하는 종교, 예술, 철학 등의 온갖 선민주의적 사상 체계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해석되고, 재정



립되어야 한다.

- (3) 열린 문명은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제어하고, 국가 간의 사회 정의나 인류 차원에서의 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 및 지구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를 요구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 간이나 한 국가 내의 개인들 상호 간에 벌어지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한 사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 (4) 열린 문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은 자연 중심적, 내지는 생명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신과 육체, 자연과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을 단지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온갖 이원론적 철학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 (5) 열린 문명은 제3의 새로운 계몽을 지향한다. 인류의 첫 번째 계몽이 인간 정신의 자유와 초월성의 발견이었고, 두 번째 계몽이 만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었다면, 제3의 계몽은 우주 속에서 생명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 5. 정보사회는 문화 유전자들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

### 1절 정보사회의 진화

#### 1) 좁아지는 세상: 전 지구적 연결망 사회

연결망 체계들이 작동하는 세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의 세상과는 다르다.

- i) 연결된 현존이 점차 늘어난다. 연결된 현존이란 타인들이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에 분포하는 매우 많은 가상물들의 매개를 통해 거기

에 있거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타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중요해진다.

ii) 가족과 친구 관계는 경제생활과 유사하게 연결된다. 외관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더욱 상호의존적이 된다.

iii) 지구적인 미시구조들은 점점 중요해진다.

iv) 이런 연결망들이 좁은 세상 효과를 만들어낸다.

## 2) 빠르게 이동하는 세상: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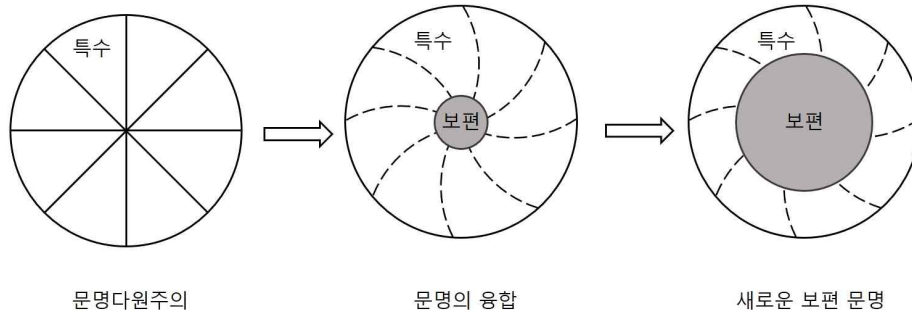
마치 온 세상이 이동 중인 것처럼 보인다. 조기 은퇴자, 국제 유학생, 테러리스트, 해외 집단이주자(disaporas), 행랑객, 사업가, 노예, 스포츠 스타, 망명 신청자, 난민, 배낭족, 통근자, 젊은 모바일 전문직 종사자, 매춘부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대 세계는 무한한 기회의 원천이거나 적어도 운명인 것 같다. 이런 여러 집단이 전 지구를 가로지르며 교통, 통신의 허브에서 간간이 마주치고, 현실에서 또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에 올 고속버스, 메시지, 비행기, 트럭 집칸, 문자, 버스, 승강기, 페리, 기차, 자동차, 웹사이트, 와이파이 핫스팟 등을 찾고 검색한다.

## 3) 빅데이터의 세상: 문화 유전자의 총체적 헤쳐 모여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문화 유전자도 빅데이터의 일종이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화 유전자의 총체적 헤쳐 모여는 시간문제 일 것으로 생각된다.

## 4) 문화 유전자들의 융합



**문명의 변천**

- i)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 ii) 합리적 존재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판단하고 행위한다.
  - iii) 인간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
- ∴ 인간은 비슷하게 판단하고 행위한다. = 문화 유전자들의 융합이 일어난다.

**2절 문화 유전자 융합의 구체적 사례**

(a)

융합의 정도 WS						
비교 문명	AHCI		SSCI		SCI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1995년	2010년
서구 vs 비서구	5.6%	14.8%	20%	27.8%	25.8%	43%
유교 vs 비유교	17.2%	22%	28.4%	42.4%	23.8%	46.6%
이슬람 vs 비이슬람	17.2%	25.2%	33.6%	39.4%	37%	54.8%
비잔틴 vs 비비잔틴	34.6%	41.4%	32.4%	39.8%	34.6%	41.4%
불교 vs 비불교	23.2%	32.2%	39%	44.2%	36.8%	56.2%
힌두 vs 비힌두	21%	34%	35.6%	43.2%	34.2%	54.4%

(b)

융합의 정도 Scopus						
비교 문명	AHCI		SSCI		SCI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서구 vs 비서구	1.4%	9.6%	6.8%	33.4%	10.6%	34.6%
유교 vs 비유교	7.6%	5.4%	11.8%	29.4%	12%	35.8%
이슬람 vs 비이슬람	9.6%	10%	14.4%	34.8%	13.8%	39.2%
비잔틴 vs 비비잔틴	11%	11.2%	9.8%	36%	17.2%	32.6%
불교 vs 비불교	7.8%	17.6%	16.4%	42.6%	16%	33.8%
힌두 vs 비힌두	7.8%	10.2	12%	25%	14.3%	35.6%

나의 문명융합론에 대해 예상되는 오해에 대해서도 몇 마디 첨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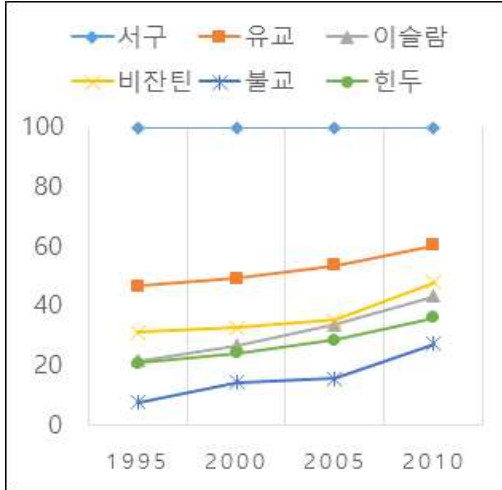
(i) 문명의 융합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장 지역적 개성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융합이 완성되기까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때에도 그 역할이나 영향력은 줄어든다 해도 지역적 개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ii) 문명의 융합이 갈등이나 전쟁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같은 문명 안에서도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형제간의 전쟁이 남과의 전쟁보다 더 치열할 수 있다. 문명의 융합이 진행되면, 서로 간의 이질성과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전쟁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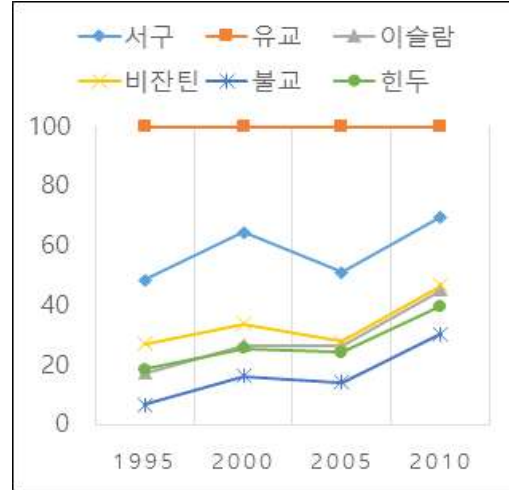
(iii) 문명의 융합이 어떤 목적이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은 아니다. 나는 역사가 목적이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된다는 역사 법칙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의 목적은 현대 문명의 융합 추세를 문명의 구조와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Web of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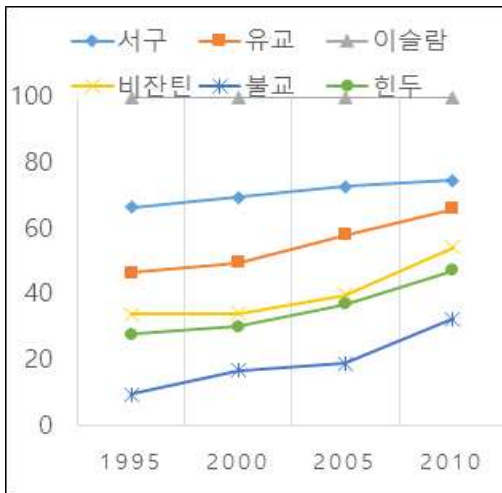
(S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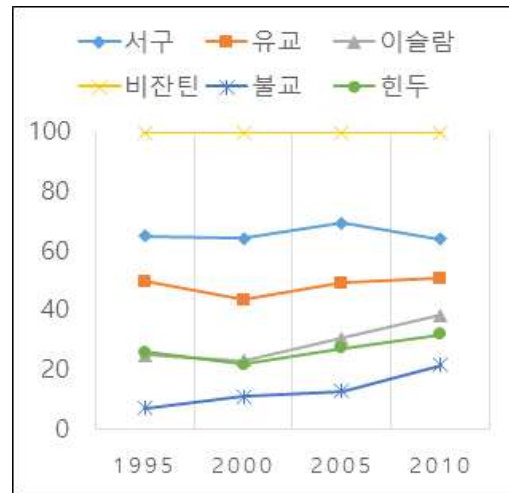
서구vs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서구	100%	100%	100%	100%
유교	47%	49%	54%	61%
이슬람	22%	27%	34%	43%
비잔틴	31%	33%	35%	48%
불교	8%	14%	16%	27%
힌두	21%	24%	29%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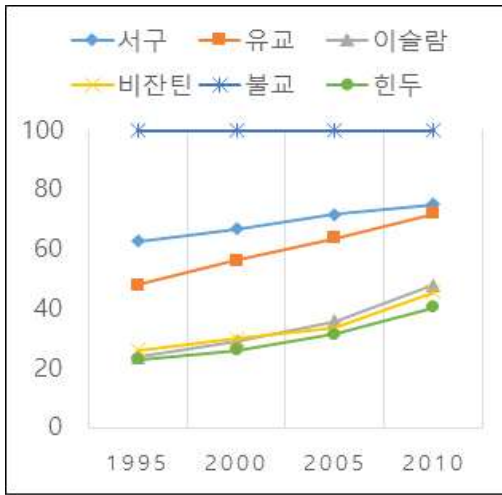
유교vs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유교	100%	100%	100%	100%
서구	49%	65%	51%	70%
이슬람	17%	27%	27%	45%
비잔틴	27%	34%	28%	47%
불교	7%	16%	14%	31%
힌두	19%	26%	2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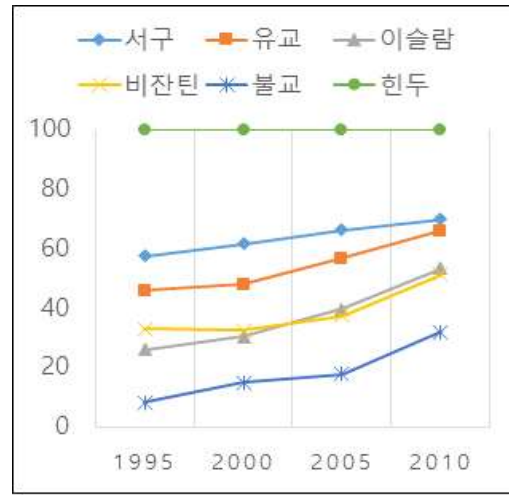
이슬람vs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이슬람	100%	100%	100%	100%
서구	66%	69%	73%	75%
유교	47%	50%	58%	66%
비잔틴	34%	34%	40%	54%
불교	10%	17%	19%	32%
힌두	28%	30%	37%	47%



비잔틴vs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비잔틴	100%	100%	100%	100%
서구	65%	64%	70%	64%
유교	50%	44%	49%	51%
이슬람	25%	23%	31%	38%
불교	7%	11%	13%	22%
힌두	26%	22%	27%	32%



불교vs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불교	100%	100%	100%	100%
서구	63%	67%	72%	75%
유교	48%	56%	64%	72%
이슬람	24%	29%	36%	48%
비잔틴	26%	30%	33%	46%
힌두	23%	26%	31%	40%



힌두vs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힌두	100%	100%	100%	100%
서구	58%	62%	66%	70%
유교	46%	48%	57%	66%
이슬람	26%	30%	40%	53%
비잔틴	33%	32%	37%	51%
불교	8%	15%	18%	32%